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안 영 진**

요약 :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을 구조개혁을 포함한 고도화, 정보화, 국제화, 특성화 등에 맞추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역화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역화는 대학이 전래의 상아탑모델에서 벗어나 지역발전모델을 확립하고 지역의 형성자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 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그 소재 도시 및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과 상호 제휴와 파트너십의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을 두고서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대학, 지역적 기능, 지역발전, 교류협력, 파트너십

1. 서 론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으면서 대학의 목적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이 상아탑(象牙塔)에만 갇혀 있을 수 없으며, 책무성과 생산성 등에 근거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뜻한다. 특히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대학개혁의 요구가 거세어짐에 따라 대학의 조직개편과 국가와

지역의 차원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관련 기구, 지역사회, 그리고 대학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김안나 외, 2003).

사실 1960, 70년대에는 대학이 세계적으로 사회변화의 주된 수단으로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각국에서는 대학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대학의 통폐합과 정원감축, 교육과정의 혁신, 기업

* 이 논문은 2004년도 전남대학교 특별연구사업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

가적 대학운영 등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령인구의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기대 변화, 산업과 노동구조의 변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 국가간 활발한 교류 등으로 세계 각국의 대학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대학들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나라보다 치열하지만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평가는 소홀히 하고 있다. 대학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성장했으나, 대학 재정은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입학생을 받아들여 선별과정 없이 졸업시킴으로써 지적 경쟁력은 빈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졸업생 배출에 등한시함으로써 대졸 실업자를 양산하거나 전락산업 분야의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근년에 선진국을 시발로 하여 여러 국가에서 사회변동과 산업개편 과정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에 발맞춰 대학과 지역 간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연계시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학이 산학협력에 참여하거나 신제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공원이거나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대학은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과 함께 대학이 보유한 각종 시설을 활용하여 신기술과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혁신센터로 부각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대학들은 대학이 보유한 도서관이나 전산설비, 체육 및 의료시설 등을 대학 구성원의 이용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지

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Giese, 1987; Fromhold-Eisebith, 1992; Luger et al., 1997; Blume et al., 2000).

목하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세계화 및 지방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변동 아래지역의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의 제고를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우리의 대학도 그 이념과 발전방향을 새롭게 탐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는 노력에 경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대학은 일차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나 지역과의 연계, 즉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학은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을 긴밀히 결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통로를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天野郁夫, 1999; 大學研究教育を考える會, 2000; 有本章外, 2003; Hoffacker, 2000).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부터 산학협력을 비롯한 대학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학과 도시 및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이론적 근거에 입각하여 실증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안영진, 2001; 안영진, 2003; 안영진, 2004; 박영한 외, 2005). 특히 1980년대 이래 고등교육체계가 양적으로 급성장하며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역기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지역발전에서의 기여,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 대학과 지역의 상생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최근 정부가 지역혁신을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육성 → 지역혁신의 활성화 →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 → 인재의 지방정착 유도 → 지방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출발점이 되는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지방)대학의 육성 또는 대학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학술적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안영진 외, 2004).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도시 및 지역과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심대한 변화를 맞고 있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대학과 지역 상호간의 교류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도시 및 지역발전에 중요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과연 대학의 목표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오늘날 시대적 환경 속에서 대학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지 등을 기존 연구의 재해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이론적 접근과 재구성된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과 지역 간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과 도시 및 지역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주체들이 어떤 목표와 현실적인 실천방향을 통해 어떤 내용의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대학의 발달과 새로운 역할 모색

1) 대학상의 변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거의 모든 부문에 걸친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문도 예외가 아니며, 그 중에서도 대학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그 어떤 부문보다 거세다. 세계 각국의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 존립 근거를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9세기에 들어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으로 본격 출범한 대학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엘리트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 진학률이 학령인구의 15%를 넘어 40~50%에 육박하는 대중화단계에 접어들고, 최근에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보편화단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자연히 대학은 고등교육 수요자의 확대와 이들의 갖가지 요구에 부응하되 각각의 위상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비전을 설정, 추진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 봉사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주된 기능은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정착된 이래, 그 강조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적잖게 변화해 왔다. 서구의 경우 중세시대에 대학이 처음 등장한 이래 대학은 ‘대학혁명’(academic revolu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차례의 변혁을 겪었다. 그 첫 번째가 대학의 주된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로 옮겨진 19세기 초엽의 대학혁명이고, 두 번째가 냉전시대 이래 교육과 연구 외에 사회봉사나 경제발전예의

기여를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삼기 시작한 대학 혁명이다. 먼저 독일과 영국 등 일찍이 대학제도가 발달해온 서구 국가에 있어서 초기 대학의 목적은 교양 있는 엘리트계층의 교육에 있었다. 이러한 서구 대학의 이념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세기 초 베를린대학과 같은 독일의 대학들이 교수의 연구를 강조하면서부터였다. 이는 ‘연구와 교육은 하나’ 또는 ‘학문을 통한 교육’이라는 이념, 즉 학문을 가르치는 것(교육)은 학자의 연구 과정과 연결되어야 하며, 또 연구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대학들에서는 교수의 연구는 학부장의보다 더 중요한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고, 교수의 승진과 임용에서 논문출판 실적과 전문성이 높이 평가받고, 교수의 자문활동, 위탁연구, 대학 졸업생의 취업 등을 통해 대학의 지식이 사회와 기업으로 이전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연구대학 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으로 확산되었는데, 물론 이들 국가에서 대학의 성격

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통합은 서로 달랐다. 예컨대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은 ‘학문 그 자체를 위한 연구’라는 독일 대학의 연구모델을 미국에 정착시킴으로써 미국식 연구중심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파시켰다. 그러나 지식의 체계적인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대학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를 통해 생산된 지식이 사회에 실용성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학의 기초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대학의 연구기능에 대한 인식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학연구의 실용적 가치 또는 응용 및 개발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학이 산출하는 지식을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흥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함에 따라 지식 생산자로서 대학의 역할은 점점 강조되어 왔다. 그 결과 교육과 연구 외에

표 1. 사회변화와 대학의 성격

사회유형 대학유형 지리적 영향 범위 지식의 역할		농경사회 중세대학 도시 전달	산업사회 근대대학 국가 발견	지식사회 미래대학 지구 이해
이념	대학상	구주 대륙형 모델	독일 및 북미형 모델	개혁형 모델
기능	중심기능 접근여부	교육 특권(엘리트)	연구 권리(대중)	학습 의무(초대중)
구조	특질 결합양식 조직 주역 수업형태	동질화 공동체 단층 교사 강의	분화 공장 중층 연구자 세미나	차별화 네트워크 초중층 학생 개인교수

출처 : 有本 章 · 山本眞一(2003: 6)에 의거하여 일부 재구성함

‘경제발전예의 공헌’이 대학의 새로운 임무로 부과되었다. 이러한 제2차 대학혁명은 산학협동의 활성화, 기업-대학-정부의 관계 변화, 사회변동과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최근 대학의 세 가지 임무(교육, 연구, 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을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 대표적 아이디어가 ‘기업가적 대학’(enterprise university)인데, 이는 대학이 마치 혁신적 기업가처럼 행동하면서 자원을 동원·배분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가적 대학은 외부의 기대와 압력에 대한 대학의 수동적 반응과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대학의 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대학은 지식을 생산하고 학문후속 세대 또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곳이자 지식경제의 중심지로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발전예의 기여, 사회봉사 등 사회적 가치는 대학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민철구 외, 2003).

본래 교육과 지식을 재생산하는 단일 공동체를 뜻하는 대학(university)이 고도 산업화와 전문화, 지식정보화, 거대화, 물결 속에서 다원적인 다기능대학, 복잡한 조직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멀티버시티(multiversity)로 변모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 평생학습, 전문직업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

시에, 국제교류를 통한 대학의 세계로의 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이 거대화, 대중화, 다원화, 다기능화 되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통합의 틀을 마련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호진, 2001). 하여튼 대학은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동시에,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 발전의 지향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2) 대학의 개혁과 대안적 역할 모색

목하 세계 각국에서는 대학교육의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모든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과 정보라는 요소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지식경영이 강조되면서 대학교육의 체계와 기능 역시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양식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발전전략의 큰 틀 또는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개혁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과학기술 등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기존의 교육체계를 바꾸거나 대학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학개혁에 나서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식정보사회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지식의 웹(knowledge web)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체계개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국립대학의 재편성과 통합, 그리고 전면적인 법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일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영국, 대학별로 학문의 전문

화를 기하고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이동하는 독일과 프랑스,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고급 인력의 수요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최우수 특성화 대학의 지원과 다양한 형식의 협력과 합병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국 등 세계 각국은 그야말로 대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임승달 외, 2004: 107; 天野都夫, 2001).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대학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회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여 대학진학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고, 각 지역에 잠재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학을 꾸준히 신·증설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을 충족시키고 고학력화를 성취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수는 지난 1970년에 비해 17배 그리고 80년에 비해 8배 정도 늘어났고,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약 82%(2004년)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대학체계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질적 결함을 노정시켜 왔다. 우선 교수 1인당 학생수는 4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명에 비해 턱없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도 OECD 국가의 평균 9,571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6,118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4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유용성 부분에서는 조사 대상 60개국 중 5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02년 한국의 고급기술인력 공급능력지수는 6.37로 미국(7.16)과 일본(7.31)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7.67)와 타이완(6.88) 등 아시아 국가들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많은 대학들은 유사한 계열과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특성화

로부터 동떨어져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간의 역할분담도 부족하여 기능의 중복에 따른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학들은 최근 들어 신입생 미충원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동안 특정 지역의 일부 대학만의 문제에 지나지 않던 이러한 현상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대학은 양적 성장 속에서 산업사회의 교육수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충족시켜 왔으나 21세기 세계화와 지식정보시대의 요구를 소화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안영진 외, 2004).

이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이 현 단계 대학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현상은 구조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전반적인 구조적 검토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학령인구의 감소추세를 고려한 대학정원의 축소, 고등교육시장의 개방을 감안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체계 확립,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역할분담 등 특성화, 전문화된 대학 교육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추진 등의 기본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이현청, 2004).

그런데 그 동안의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대학간 전략적 제휴나 연합체계의 구축, 그리고 통폐합 등이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부각되고, 따라서 다소 강제적인 수단에 입각한 획일적인 개혁 방향과 하드웨어적 접근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대학구조조정은 우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혁신의 기본방향은 단순히 대학 규모의 축소나 정원감축이 아닌, 그동안 성장한 대학체계에 부합하는 성숙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단위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생선발 방식, 교육과정, 교수 및 학습방법, 학사체계 등 대학의 운영 전반에 걸쳐 그 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재편하는 대학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되는 동시에 개별 대학이 스스로의 인적·물적 자원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는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특성화 전략과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양성하고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연계전략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춘 대학정책도 타당성이 있으나, 대학별 역할을 차별화하거나 각 대학이 지닌 역량을 극대화하고 대학이 지닌 현실적 여건에 알맞게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추진하는 노력도 아울러 필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차 더욱 더 치열해질 대학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대학은 대학운영의 효율화와 구조개편, 질적 고도화, 성숙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 등 다양한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결합된 전문화 및 특성화 대학, 지역에 앙가쥬망하는 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도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대학을 대학이 소재한 도시나 지역의 여건과 연계를 맺지 못하고 특성화가 결여된 천편일률적 성장에서 벗어나, 국토공간의 지역적 발전양상 또는 국가경제의 권역별 산업체계와 발전 잠재력, 고급 전문기술 인력의 수급구조 등과 긴밀하고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도시 및 사회의 지식 및 기술생산의 거점이자 혁신의 중추기관으로서 발

전시켜 나가는 방안이다. 물론 이러한 '지역화'의 비전은 기존 대학의 성격과 여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온 대학의 본질적 역할과 책무를 신장시키면서, 적어도 소재한 지역과의 교류협력 속에서 다양성과 독자성을 갖고 지역과 상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과 지역의 상호 관계

1) 대학과 지역 간 연계 강화의 배경

오늘날 대학을 대학이 소재한 도시나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조직체이자 거점기관으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대학은 학문과 교육의 공동체이자 생활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학은 학문탐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질 높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화 창달과 사회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특히 대학의 사회봉사의 일차적 장소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학과 지역발전,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강조는 대학과 지역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적, 행정적, 교육적 상황조건의 변화와 결코 무관치 않다. 이러한 여건 변화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공히 관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다(Goddard, 2000; Charles, 2003).

첫째,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역 노동력의 기술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에 기반을 둔 한 연구

개발(R&D)로부터 연유하는 제품 및 공정 혁신을 적극 활용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보 기반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는 대학이 창출하고 개발하는 지식과 기술에의 접근 여부는 잠재적으로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변성하는 것은 지역사회 자체는 물론이고 대학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를 테면 대학의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은 보다 나은 학생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기업들과의 각종 협약이나 자문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중요한데, 현재 세계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지방자치제의 실시나 지방분권의 확대 등 지방화의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필요성에 대응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지역은 각종 국가발전전략과 계획의 기본 단위로 다시금 부상하고 재흥을 맞이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RIS)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존 하드웨어의 기반 위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관-학-연 등 연계 클러스터를 통해 지역의 분산된 혁신역량을 네트워킹하여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문화육성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지방화와 더불어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인 지원체제도 지역의 제도적 역량과 내생적 발전에 점점 초점을 맞추어져 가고 있다. 대학도 자연히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른 기회와 위협을 결코 도외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셋째,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의 우선순위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구조변동이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창의적 지식을 중요시하고, 지식정보의 변화 속도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성격 변화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유연하게 습득하는 것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높여 왔다. 더군다나 대학 교육기회의 제고는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이를 넘어선 보편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곧 대학의 성격 변화와 함께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의 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현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나서야만 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대학 특성화 발전 등의 정책을 연계시켜 추진하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 기능 외에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지이자 거점으로 삼아 특성별 대학육성을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역량의 강화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지역사회를 고려한 특성화를 강력히 지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 발전전략이란 곧 지역별 산업 환경과 발전여건에 부응한 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함양함으로써 대학의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는 발전전략을 뜻한다. 이는 또한 각 대학이 첨단 과학 기술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관광, 역사, 인문사회 분야 및 예술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기도 하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각 지역의 대학들은 국내 어느 지역의 대학들과도 차별화되는 특성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통합적 조정과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대학의 육성과 관련하여 대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대학수업과 현장수업이 번갈아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지역 산업체 등이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외부인증제’를 확대할 예정이며, 나아가 대학과 기존 지원기능(테크노파크, 기술혁신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대학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산업체로의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육성을 위한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추진방안에 있어서도 신규 대학 지원프로젝트는 지역이 선택한 중점 육성분야의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학협력 활동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으로 약칭)에 있어서도 지역발전전략을 토대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대응 투자를 행하게 함으로써,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역혁신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과 지역은 전략적 제휴와 교류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대학과 지역 차원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안영진 외, 2004).

2)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 관계

좁은 의미의 대학의 지역사회에의 봉사 또는 넓은 의미의 대학의 지역발전에의 기여 및 공헌은 중요한 학술적 관심대상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있다(Meusburger, 1998; Keane et al., 1999; Thanki, 1999). 이와 대해선 논자에 따라 서로 다른 논점과 분류 체계가 제시되어 왔으나, 기본적인 전제는 대학이 교수와 연구와 봉사 등의 본질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이 지역과 연계하여 인적자질의 향상, 혁신제고, 문화 및 공동체 형성 등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며, 결국 대학과 지역이 분리될 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체계를 형성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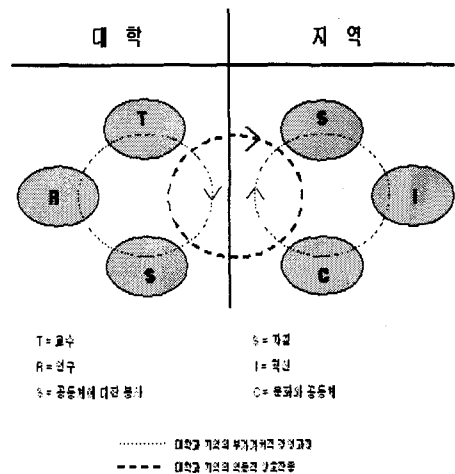


그림 1.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작용 관계
출처 : 박영한 · 조영국 · 안영진(2005: 18)

대학의 지역발전에 기여 혹은 지역에 있어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개괄할 경우, ‘인적자본의 형성자’,

‘(상품화된) 지식의 생산자’, ‘경제적 실체’, ‘네트워크상의 제도적 행위자’, 그리고 ‘정체성의 제고자’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크게 정리될 수 있다(남치호 외, 1997; Newlands, 2002). 이처럼 대학은 전래의 책무에 머물지 않고 지역으로의 개방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거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한 산출물을 내놓고 있다. 대학은 갖가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지역발전을 유도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대학과 지역간의 관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상과 같이 대학의 지역에의 일방적인 기여 혹은 공헌에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이다. 즉, 대학은 일종의 시혜자로, 지역은 수혜자로 파악하는 협소한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의 기업들이나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는 지역에 있어 대학의 발전적 역할을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고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은 급변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와 지방화 시대로 표현되는 사회변동에서 지역의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을 제고하고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대학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형편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의 국가단위의 경쟁에서 지역단위의 경쟁으로 확산, 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각종 연구소, 산업체 등을 네트워크하여 다양하고 역량 있는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며, 인재양성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과 활용이야말로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핵심이다. 인재양성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미래를 주도해나갈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지역은 대학과 힘을 모우고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지역의 산업과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고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조직간 상호작용 및 제도적 집약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고, 특히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은 대학과 지역의 관계는 되먹임(feedback)을 통하여 부단히 확대·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박영환, 2005). 특히 대학이 지식과 인적자본의 공급원이자 지역경제발전의 혁신주체이며 지역정체성과 이미지의 제고자로서 지역발전을 추동하고 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이 발전해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지역의 활성화가 바로 대학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것과 연결되는 만큼, 양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교원의 초빙, 연구인력의 확충, 그리고 신입생 확보가 용이해지며 외부로부터 대학으로의 새로운 자본 및 시설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대학 교육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대학의 인력양성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듯이, 이러한 문제점도 지역의 각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학연계 및 실습을 통한 현장 지향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및 활성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산학협력, 관학협력, 대학-주민-지역사회의 협력 등을 포함한 대학과 지역간의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의 강도와 성격, 그리고 방향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교류 및 협력의 내

용에 따라 적잖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제도적,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Boucher et al., 2003). 즉, 대학과 지역간의 교류협력 관계는 일차적으로 대학과 지방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대학과 지역이 얼마나 분권화, 지방화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둘째 대학이 자리 잡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나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제적 발전수준, 이 지역이 중심부인가 아니면 주변부인가 하는 공간적 특성, 셋째 개별 대학의 성격과 유형, 대학의 수와 밀집도 등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또한 넷째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대학 자체의 대외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와 대학이 과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지역 차원에서도 지연(地緣)기업이나 지자체 등이 대학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뒷받침 받고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

1) 교류 및 협력의 방향과 접근체계

대학이 오랫동안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이자 사회에 대한 지식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근래에 대학이 전문 특성화와 경쟁우위를 지향하며,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대학은 '고독과 자유'(Einsamkeit und Freiheit)라는 전통적 이념에서 벗어나 현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을 모색하고, 장기

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응하여 구조개편과 질적 제고 내지 성숙화를 추구해야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과 국가 및 사회 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육성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상아탑모델'(ivory tower model)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모델'(regional development model)을 확립하고, 전통적인 '국가의 형성자'(nation builders)에서 '지역의 형성자'(region builders)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은 양자가 상호작용과 참여, 그리고 연계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휴(collaboration)와 교류협력(cooperation)을 추진하고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사회로의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의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 협력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공헌하는 동시에 대학의 존립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고, 지역은 지역 발전에 있어 대학의 실용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창조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상호 교류협력과 파트너십의 구축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역의 성격과 역할 기능 등에서 있어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市川昭午, 2001: 197-204). 그러므로 양자간의 원만한 관계

정립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 요구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원활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대학과 지연기업과 경제단체, 지역의 행정기관, 보건·복지, 문화·예술, 각종 시민단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정보교환과 각종 자문 및 협의에서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거쳐 시설의 공동이용과 투자, 공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인적자원의 교류, 공익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이르는, 손쉽고 간단한 일에서 고차의 체계적인 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상호작용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의사소통과 친분이나 신뢰관계에서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출발하여 구성원과 관련 부처간 상호작용, 그리고 부처와 부처간 상호작용으로 점차 제도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양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초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이고 수직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나, 상호작용 내용의 변화 추이에 맞추어 쌍방적이고 수평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2) 교류 및 협력의 패턴과 그 강화 방안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들이 극히 다양하고 폭넓게 제시되고 있다(白石克己 外, 2001; 長崎大學生涯學習教育研究センター運営委員會, 2002; 友成真一, 2004; Ermert, 1997; Keane et al., 1999: 898; Boucher et al., 2003: 892). 여기서는 대학과 지

역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되, 향후 실증적인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몇 가지의 유형구분에 의거한 일반적인 패턴과 내용, 그리고 그 강화 방안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제시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에 있어 대표적인 유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인 대학 자체나 그 기능의 일부를 지역에 유치하는 패턴(제1패턴)과 산학협력 패턴(제2패턴)이다. 우선 과거 특정 지역에 대학 자체나 대학의 유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미군정과 6.25사변과 거치면서 이른바 ‘一道一大學原則’에 따라 도별로 국립대학을 발족하였으며, 그 후 지역별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꾸준히 신설해 왔다. 이는 대학이 지역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젊은 세대의 교육을 받기 위한 역의 이출을 저지하고, 결국 자질 있고 숙련된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대·과밀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동결과 대학신설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수도권 및 지방 분교가 크게 확산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도시와 지방에서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당국에 로비와 청원 등 다양한 활용을 추진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대학의 유치와 입지는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의 일차적 가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하지만 대학이 국지적 존재라기보다는 보편적 존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사회와 유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심지어 대학 입지에 따른 지가양등이나 주택부족, 공동체의식 약화 등 대학

소재 도시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제적 실체로서 대학의 지역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새로운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의 형태로서 지역에 의한 역외 대학의 기능유치라는 변형된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 그 자체가 아닌 대학의 기능을 지역에 유치하는 패턴인 것이다. 오늘날 처럼 대학의 통폐합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거나 일부 대학이 퇴출당하는 시대에서는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거나 신설하려는 시도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성공을 반드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유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대학의 시설 자체보다는 대학의 일부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시대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 시설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극히 일부를 매년 지출한다고 해도 지역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형의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 패턴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에 부족한 대학의 자원과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역시 종래의 패턴에 해당하지만,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도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는 두 번째의 패턴이 산학협력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산학협동관련법’, ‘기술이전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등에 의해 대학과 산업체간의 제휴 및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가

에 따라 산학협력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지만,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이전부처나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또는 산학협동사업단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거나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에 기술이나 각종 노하우를 이전하고, 학교 기업제도 시행, 창업 및 보육지원,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관계가 반드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이 지역과의 협력관계보다는 연구 측면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고 외부로부터 각종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전력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김, 2004: 13-16). 따라서 앞으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고급 인적자원개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 파트너십의 활성화가 핵심적 관건이다. 대학과 기업 간의 학생 및 교수 그리고 기업체 종사자의 교류확대, 공동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단초이긴 하나 국내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계약학과 신설이 산학협력의 새로운 형태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종래의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 패턴 이외에 비교적 새로운 교류 및 협력 패턴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특정 대학과 지역간 그리고 해외의 대학과 지역간에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국내 특정 대학과 지역간의 교류협력에 새로운 흐름이 발견되는데, 이는 다시 특정 도시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을 지역이 적극 활용하는 패턴(제3패턴)과 대학과 지역

의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파악되는 유형인 대학의 지역적 전개패턴(제4패턴)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지역이 지역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3패턴에는 실제로 다양한 교류협력 형태가 존재한다. 과거 대학의 일반적인 활용 방법은 대학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에 위원직을 맡거나 대학의 연구소가 지자체로부터 각종 조사연구의 업무를 수탁하는 것이었다.¹⁾ 이와 달리 새로운 형태는 대학의 재학생들을 광범위하게 끌어 들여 학생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발의를 지역의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일본의 경우 많은 도시정부에서도심이나 중심 시가지의 유희시설을 지역대학의 학생 단체나 대학원생들이 점포나 판매소, 조사센터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중심 시가지의 유희시설의 활용과 학생들의 견인을 통한 도시의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대학생들을 방학 등을 이용하여 행정보조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일정 금액의 장학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실행되어 왔다. 앞으로 지역사회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대학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프로젝트에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지역적 전개라는 제4패턴은 통상적인 대학과 지역간의 교류협력 패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학들은 지역에의 개방과 접근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첫째,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지역경제도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지식은 빠르게 진부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전략산업은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대학의 의무이자 중요한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원격평생교육, 가상대학, 개방대학(open college)²⁾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학의 사회교육원, 정보전산원, 언어교육원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양교육, 어학교육, 전산 및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특수대학원의 활성화를 통한 전문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대학은 실업자 재취업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캠퍼스형 대학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에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각종 시설과 기자재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지역과 함께 지역을 위해 성장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도 할 수 있다. 박물관과 도서관, 그리고 운동장 등의 개방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예술·환경 영역과 관련된 정보 및 시설도 장차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며, 종합정보센터의 운용을 통한 자료의 활용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은 실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저장소이자 관련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지연기업의 발전과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의 적잖은 대학에서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봉사서비스들로서 법률 및 행정 자문 서비스, 기술 및 경영 지원 서비스, 심리 및 교육 상담 서비스가 있으며,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대학의 교직원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다. 넷째, 대학은 지역의 문화창달과 예술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해 왔다. 오늘날 대학은 지역의 문화 및 예술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의 유치 및 지원, 각종 페스티벌과 콘서트 그리고 전시회 등의 개최,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 다섯째, 대학은 간접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교직원과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직접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 및 교직원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은 오늘날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예이다.

이밖에도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특수한 패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과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도 언급할 수 있다. 그 하나가 국내 대학과 해외진출 패턴(제5패턴)으로서 국내 대학의 해외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제휴는 상당한 범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본격적인 해외진출의 예는 많지 않다. 단순히 정보수집거점이 아닌, 현지의 대학 등과 협력하고 산학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는 거점을 해외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대학의 국내 진출 및 외국 유학생의 지역 유치 패턴(제6패턴)도 상정할 수 있다. 교육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해외 대학의 국내진출도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으며, 외국 유학생을 지역에 유치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외국 학생의 체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장차 대학 진학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할 때, 대학은 존립을 위해서도 외국 유학생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은 전통적인 조직 간의 경계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과 지역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의식전환과 내부 조직의 재정비 및 제도개편을 단행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대학발전 방향에 반영함으로써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의 접근을 통해 지역발전의 모티이자 자매기관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대학은 다시금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 기술, 노하우 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이 중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들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대학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중추기관이자 핵심주체의 하나인 대학이 도시와 지역과 어떤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그 발전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아울러 그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특히 대학과 지역 양자가 그 존립과 함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변화의 노력과 비전을 갖고 합목적적인 행동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대학 진학자수의 감소, 대학교육기회의 확대 등으로 대학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압박이 가중되면서 대학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발전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의 대안은 지역사회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와 결속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 교육 및 연구기능을 통해 창출된 각종 산출물들을 대학이 소재한 해당 도시 및 지역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시키고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통해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인재와 지적재산 및 비즈니스를 만드는 기능 외에 지역을 만드는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존립하는데 필요하며, 다른 아닌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논의에 따르면 대학이 지역발전에 있어 인적자본의 형성자, 지식의 생산자, 경제적 실체, 네트워크상의 제도적 행위자, 그리고 정체성의 제고자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이 발전해야 대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다. 대학의 지역에의 기여가 곧 대학의 대외적 위상 제고,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 우수교원의 초빙, 연구인력의 확충, 신입생 확보의 용이, 외부로부터 대학으로의 새로운 투자 확대 등과 연결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과 지역의 교류협력은, 양자가 상호작용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호혜적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제휴, 교류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데, 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의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 사이의 교류협력을 손쉽고 간단한 내용에서 고차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서 개인과 부처간의 관계를 거쳐 부처와 부처간의 관계로 제도화시켜 나가며, 그리고 일방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쌍방향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류협력 패턴은 심화시키면서 새로운 교류협력 패턴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방안까지 기존의 문헌 자료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론적 논의에 기울고 경험적 분석이나 실증적인 사례 검토가 미흡한 일반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사례 및 다양한 실증 분석이 진행되고, 대학과 지역의 바람직한 관계 및 호혜적인 발전과 상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깊이 있게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주

- 1) 최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학협정을 통한 혁신프로젝트의 추진도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대학교는 2004년 11월 전남 함평군과 관학협력 협정

을 체결하고,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함평군의 산업발전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해가기로 했다. 전남대와 함평군의 협력사업은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 나비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디자인산업 발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계획하고 있다. 먼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함평지역 한우 생산조직 및 가공 유통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유기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에서부터 육질분석, 가공식품개발, 제조 판매시스템구축에 이르기까지 함평천지 한우브랜드의 생산·관리·가공·판매의 전과정을 혁신해 나가고, 이 같은 클러스터를 지역농업 전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축제로서는 유례없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함평군의 나비축제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부가가치 높은 나비산업과 곤충산업을 육성해갈 방침이다.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함평군 곤충연구소가 협력, 곤충호르몬과 유전인자를 분석 개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나비와 곤충의 애벌레 연구를 통해 신약 및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남대 생활과학대학 연구팀이 나비 전문디자인을 개발해 함평군의 나비상품 브랜드인 ‘나르다’를 업그레이드하고 왕골돛자리 창포상품, 천연염색상품, 나비공예상품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해 함평군의 수입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함평군에 전남대 평생교육원 분원 설치 등을 추진해 생활과 직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혁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2)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광주시민단체 협의회가 2004년 11월 23일부터 12월1일까지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NGO학교를 개설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NGO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NGO, 생명 평화, 언론, 문화, 지방자치, 여성, 정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다. NGO학교는 전남대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NGO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참 고 문 헌

- 김안나 외, 2003,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호진(편), 2001, 지식혁명 시대의 교육과 대학, 서울: 박영사.
- 남치호 외, 1997, 대학과 지역사회발전, 안동대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민철구·송완흠·박상완, 2003,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영한·조영국·안영진, 2005, 대학과 지역발전 :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 안영진, 2001, “전남대학 졸업생의 취업구조와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pp.37-56.
- 안영진, 2003, “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과 지역발전 :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pp.171-191.
- 안영진, 2004, “대학 신입생의 특성과 취학권 : 전남대학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3), pp.481-501.
- 안영진·김태환, 200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발전 :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7(2), pp.31-44.
- 이현청, 2004, “대학의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대학지성 2004 가을·겨울호, pp.6-20.
- 임승달·권영섭·변세일,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 大學研究教育を考える會(編), 2000, 大學の社會的責任 : 大學における學問・教育・人材育成, 東京: 丸善株式會社.
- 白石克己・佐藤晴雄・田中雅文(編), 2001, 學校と地域でつくる學びの未來, 東京: ぎょうせい.
- 市川昭午, 2001, 未來形の大學,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 友成真一, 2004, 現場でつながる! 地域と大學, 東京: 東洋經濟新報社.
- 有本章・山本眞一, 2003, 大學改革の現在, 東京: 東信堂.
- 長崎大學生涯學習教育研究センター運營委員會(編),

- 2002, 地域と向き合う大學を考える, 長崎: 財務省印刷局.
- 天野郁夫, 1999, 大學: 挑戰の時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天野郁夫, 2001, 大學改革のゆくえ: 模倣から創造へ,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 Blume, L. und Fromm, O., 2000, *Regionaloekonomische Bedeutung von Hochschulen*,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aets-Verlag.
- Boucher, G., Conway, C., and van der Meer, E., 2003, "Tiers of engagement by universities in their region's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7(9), pp.887-897.
- Charles, D., 2003, "Universities and territorial development: Reshaping the regional role of UK universities," *Local Economy* 18(1), pp.7-20.
- Ernert, K.(ed.), 1997, *Hochschule und Region: Wirkungen und Wechselwirkungen*, Regburg-Loccum.
- Fromhold-Eisebirth, M., 1992, *Wissenschaft und Forschung als regionalwirtschaftliches Potential?* (Informationen und Materialien zur Geographie der Euregion Maas-Rhein 4), Aachen.
- Giese, E., 1987, "Hochschulen als Gegenstand regionalwissenschaftlicher Forschung," in Giese E.(ed.), *Aktuelle Beitrage zur Hochschulforschung* (Giessener Geographische Schriften 62), Giessen, pp.1-24.
- Hoffacker, W., 2000, *Die Universitaet des 21. Jahrhunderts: Dienstleistungsunternehmen oder oeffentliche Einrichtung?* Luchterhand, Neuwied.
- Keane, J., and Allison, J., 1999, "The intersection of the learning region and loc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alysing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Regional Studies* 33(9), pp.896-902.
- Kim, H.-J., 2004, *It Goes to School: Interactions between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panies in U.S. Metropolitan Area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uger, M. I. et al., 1997, "What is the role of public universitie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Bringham, R. D., et al.(eds.), *Dilemmas of Urban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Annual Reviews 47), pp.104-133.
- Meusburger, P., 1998, *Bildungsgeographie: Wissen und Ausbildung in der raeumlichen Dimension*, Berlin: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 Newlands, D., 2002,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Higano, Y. et al.(eds.), *The Region in the New Econom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Regional Dynamics in the 21st Century*, Ashgate, pp.178-191.
- Thanki, R., 1999, "How do we know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33(1), pp.84-89.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8, No. 1, 2005(71~89)

A Study on the Universities as Partners i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Young-Jin Ah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Abstract : In the era of knowledge-based society and glocalization the new role and mission of universities is of increasing concern to us. Studies of the successful universities suggest that there are many way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for example high qua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etc. In this context we can also focus particularly on the regionalization of universities in terms of the university as a regional build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interac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regions and to explain their's contributions to the regional developments.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university-region interaction is a win-win strategy both for university and for region in the rapid changing social-economic, administrative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more systematic and stepwise approaches are required to ensure a mutually beneficial collaboration.

Key Words : university, regional dimension of universities, regional development, collaboration, partnership.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special research fund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2004.